

(2) 놀이

① 강강술래

순천지역에서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놀이는 강강술래다. 수십 명의 아녀자들이 밝은 달밤에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돌아 춤추는 모습은 실로 예술적 감흥을 새롭게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설소리와 받음소리가 흥을 한층 돋우어 밤 깊은 줄 모르고 계속된다. 이 놀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적군을 속이기 위한 방책으로 만들었다고도 하고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 '강강수일래(强羌隨日來)'라고도 하나 이것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그 기원은 고대의 추수 감사제의적인 성격의 농경의례나 만월제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강술래는 여성을 나타내는 원리와 관계 있다. 즉 여성은 생산 기능을 가지며 지모신에 상응된다. 즉 춤의 형태인 원형의 모습은 만월의 풍요에 가까운 것이니, 만삭이 된 여인의 배와 상통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추수감사절에 춘다고 하는 것에서 역시 농경의 풍요와 강강술래의 상관 관계는 명확해진다.

강강술래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느리면서도 애조가 깃든 진양조 즉 늦은 강강술래요, 또 다른 하나는 뛰면서 부르는 잦은 강강술래가 그것이다. 전자는 '설소리꾼' 즉 메김소리를 하는 사람이 길게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강강수월래를 제창하면서 둥글게 돈다. 후자는 전자와 같이 둥글게 도나 그 가락이 빨라지고 일제히 뛰면서 강강수월래를 제창한다.

② 달마중

정월 대보름과 마찬가지로 추석에도 달마중을 한다. 먼저 떠오르는 달을 보기 위하여 산에 오르기도 한다.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절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남보다 먼저 보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속신도 있다.

③ 반보기(中路相逢)

한창 바쁜 여름을 보내고 나면 그간 만나지 못했던 일가친척이나 혹은 시집간 여자들이 친정식구와 중간쯤 되는 지점을 정하여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이웃 마을의 부녀자들끼리 일정한 장소를 정해두고 만나기로 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기기도 한다.